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성형태도와 의복행동

박은희 · 조현주*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and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Females' Appearance Concerns

Park Eunhee · Cho Hyonju*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appearance concern into groups and analyze the differences of the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and clothing behavior by groups. Questionnaires are administered to 206 female adults in their 20's-50's living in Deagu and Kyungbook areas from 10th July to 19th July, 2013. Frequenc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Duncan-test and χ^2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appearance concern is categorized as follows: appearance harmony focus and body focus. The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was found as risk tolerance, image improvement/surgery desire and keeping the secret of surgery. Clothing behaviors are found as individuality focus, other focus, convenience and luxury ostentation. The appearance concern show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ub-variable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and clothing behavior. One test in the groups is determined by demographic variables like occupancy and monthly income. Appearance concern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s follows: appearance concern group, low appearance concern group and body concern group. The group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and clothing behavior. This difference indicates that the 20's show a high body focus on their appearance concern, an attitude of image improvement/surgery desire toward plastic surgery and another individuality focus on clothing behavior while 50's care more about convenience in their clothing behavior.

Key words : appearance concern (외모관심도),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성형태도), clothing behavior (의복행동)

1. 서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대인관계에서 외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여성에게 후한 평가를 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예뻐야 된다는 미적욕구를 이루기 위해 성형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제일기획 여론조사("Lookism", 2002)에 의하면 13-43세 여성들은 '외모가 인생의 승패에 크게 작용한다'에서 68%였으며 '피부 및 몸매를 보면 그 사람의 생활수준이 짐작된다'에서 70%, '외모를 가꾸는 것은 멋이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에서 78%를 나타내었다. 외모관리에 투여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53분, 하루에 거울을 보는 횟수는 평균 8.3회, 쇼윈도 옆을 지나가다가 자기 몸을 비춰 보는 비율은 49%를 나타내었다. 이렇듯 외모는 자기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며 그것은 곧 자기 삶에 대한 충실한 태도를 의미하고 요즘 여성들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외모는 타고난다는 생각보다는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기인하여 매력적인 외모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개인은 이상적인 신체 및 외모에 대한 기준을 알게 되면 그 기준에 도달하고자 체중조절, 화장, 머리손질, 피부관리, 유행하는 의복 착용 등 일상적인 외모관리와 함께 미용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를 한다(Song, 2009). Musa and Roach(1979)는 청소년의 44%가 자신의 외모변화를 원한다고 하여 성형수술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Son(2007)은 외모지상주의 문화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매우 보편화되어버렸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한 번 정도 한 사람에게서는 병리적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렇듯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적극적으로 외모를 개선하려는 성형수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Jeon & Lee, 200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며 삶에 대한 충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외모는 개인에 따라 관심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외모의 관심정도와 성형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연령에 따른 외모관심도와 성형태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의복은 외모와 함께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무언중에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하거나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Kahng et al., 2012). 의복과 장신구를 포함하는 의복행동은 의복의 관심, 선택 및 사용, 표현 등의 포괄적인 의미로서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성격, 태도, 신분 등을 반영하므로, 개인의 내면적 특성들이 의복행동에 반영될 뿐 아니라 행동이나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감정, 나아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욕구까지도 의복으로 표현될 수 있다(Park & Ku, 2012). 따라서 화장, 헤어스타일, 미용성형 등에 의한 전체적인 조화와 체형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 의복행동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는 주로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성형태도(Choi, Kim, & Kim, 2009; Chung & Lee, 2007; Hwang, Jo, & Yoo, 2003; M. Lee & Song, 2009; Song & Kim, 2005), 자아존중감과 성형태도(Huh & Lee, 2011; Jeon & Lee, 2002),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I. Kim, 2010; Song, 2009)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성형태도의 하위변인과 의복행동의 하위변인의 차이를 규명하고, 연령에 따른 외모관심도, 성형태도 및 의복행동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여성의 외모관련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관심도

외모는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Huh & Lee, 2011). 더불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판단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Park & Cho, 2012). 외모에 대한 관심도는 의복, 화장, 미용, 체중 등에 의한 전체적인 조화와 체형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신의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미용성형, 다이어트 등의 미용행동으로 나타나며 이런 행동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기준에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수단이 된다(Y. Kim & Park, 2009). Hong(2013)은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적인 실루엣인 몸매라고 하였으며 이는 외적인 실루엣이 체형과 이미지를 좌우하게 되고,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현대사회의 외적인 비주얼의 가시화를 부각시켜준다고 하였다. Hwang et al. (2003)은 외모관심도가 높은 사람은 미용성형행동에 거부감이 낮아 실제로 미용성형행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학년이 높을수록 사회접촉 빈도가 높아지므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정도를 인지하게 되어 보다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려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하였다. M. Lee and Song(2009)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가 매력 있다고 여길수록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가 매력적일수록 동조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I. Kim(2010)는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의복의 심미성을 추구하였고 의복을 통해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무관심할수록 의복의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부위 중 체중과 둘레부위에 만족할수록 꼭 맞는 의복을, 신체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느슨한 옷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Song and Kim(2005)은 20대와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체중과 신체에 관심이 많을수록 성형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였다. Huh and Lee(2011)는 여학생 경우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이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이들 변수 중에서 외모관심도와 여학생이 성형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 변수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성형욕구가 강해지고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높음을 볼 수 있다.

2. 외모관심도와 성형태도

과거의 미용성형은 얼굴의 불균형이나 자기만족결여, 경제적인 부의 상징, 직업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었지만 현대는 자기 자신의 자신감 상승과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표현하기 위한 자기만족이 크게 작용한다(Hong, 2013). 즉 성형은 신체의 매력성을 증가시켜 긍정적 심리변화를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부여하게 된다. 현대인들은 성형을 통해 외모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감소시키고, 사회문화적 압력으로부터 집단과 비슷해지기 위한 노력으로 성형행동을 한다. 따라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신을 인지하고 타인과의 사회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성형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Jeon and Lee(2002)는 18-49세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와 성형태도에서 연령이 적고 사회계층이 높으면서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으며 신체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성형동조의 정도가 강하다고 하였다. M. Lee and Song(2009)은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성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하였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매력이 높다고 여길수록 성형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Huh and Lee(2011)는 각 변수를 7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을 구한 결과 성형에 대한 태도에서 평균이 4.74점으로 나타나서 대학생들은 성형하는 것에 대해 약간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95명(20.1%)은 성형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377명(79.9%)은 성형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0대 대학생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을 시기이고 성형에 대해서도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성형하지 않은 학생들이 80%로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형태도가 긍정적일지라도 실제 성형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형수술의 위험, 경제적 비용, 주변의 인식 등과 같은 변인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Song and Kim(2005)은 20대와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체중과 신체에 관심이 많을수록 성형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형욕구는 20대 여성이 40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대 피험자가 40대보다 자신의 신체 외모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성형욕구도 높다고 하였다. Jeon and Lee(2002)는 성형가치에서 20대가 높게 평가하였고 40대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20대는 결혼 적령기로 인해 교제가 많아지는 시기이며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어 외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성형수술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형위험 수용의 경향은 전체적으로 낮아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형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Son(2007)은 여성들이 성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얼마나 중시하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느 정도 불만족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에 대한 왜곡이 성형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성형수술 행동이나 의도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Hong(2013)은 미용성형인식에서 미용성형 경험여부는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70% 정도였으며, 미용성형 선호 부위는 코에서 가장 많았고, 눈과 얼굴형에서 동일비율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3. 외모관심도와 의복행동

의복행동은 자기표현과 동시에 자신의 인상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신의 이상적인 신체를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는 의복이 필요한 도구가 된다(I. Kim, 2010). 즉,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본인이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옷과 날씬하고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옷을 착용하였으며, 외모에 관심이 많고 매력적이며 몸매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섹시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한다(K. Kim, Lee, & Chung, 2001). 반면에 자신의 체형이 비만이거나 너무 말라 불만이 있는

경우, 눈에 띄는 옷차림은 체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에 동료들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게 된다(Song, 2009). Rudd and Lennon(2000)은 외모가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젊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모유지를 위해 의복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K. Kim et al. (2001)은 외모관심과 신체보완 및 사회적 인정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의복을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의복의 도구적 기능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Chung and Lee(2007)는 성형을 통해 달라진 외모로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사람은 유명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의복으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며, 옷을 멋있게 입는 것이 중요하고 연예인의 차림새를 따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성형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옷을 입을 때 미적인 측면에서 불만족한 경우가 많고 굳이 연예인의 외모나 옷차림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상표의 옷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위의 사람들이 원하면 성형을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유명상표를 좋아하고 옷이 멋있다는 평을 듣기 위해 노력하며, 연예인의 외모를 동경하여 이를 쫓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M. Lee and Song(2009)은 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의복에 관심이 많고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에 관심이 많았으며, 자신이 속한 동료집단과 비슷한 옷차림을 한다고 하였다. Song and Kim(2005)은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유행이나 외모에 관심이 적고 의복을 통한 과시행동을 적게 하며 동조성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20대는 40대보다 자신을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외모와 신체매력에 관심이 많으며, 자아개념이 높고, 의복유행관심, 의복을 통한 과시성,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는 20대보다 체중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1. 여성의 외모관심도, 성형태도, 의복행동의 요인 구조를 파악한다.
2. 여성의 외모관심도와 성형태도,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3.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소비자 집단을 분류하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4.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성형태도와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2013년 6월에 걸쳐 예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7월 10일-7월 19일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 23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06부를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20대 55명(26.7%), 30대 73명(35.4%), 40대 46명(22.3%), 50대 32명(15.5%)이었다. 직업은 학생 47명(22.8%), 전업주부 123명(59.7%), 직장인 36명(17.5%)이었다. 가구 월평균소득은 200만원미만 51명(24.8%), 200-300만원미만 47명(22.8%), 300-400만원미만 39명(18.9%), 400-500만원미만 31명(15.0%), 500만원이상 38명(18.4%)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SPSS PC+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 군집분석, ANOVA, Duncant-test, χ^2 -test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한 외모관심도, 성형태도, 의복행동 등의 측정항목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측

정항목들은 사전조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각 개념항목을 측정하였다. 외모관심도, 성형태도, 의복행동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외모관심도(appearance concern)는 의복, 화장, 미용, 체중 등 전체적인 조화와 체형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하며, 선행연구(J. Lee & Han, 2008)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성형태도(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는 성형을 통한 이미지 향상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따른 평가를 의미하며, 선행연구(Chung & Lee, 2007)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의복행동(clothing behavior)은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의복, 가방이나 소품, 액세서리류 등을 선택하여 착용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선행연구(Park & Ku, 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성형행동은 성형횟수, 성형한 부분이었으며, 인구통계적 변수는 연령, 직업, 월평균소득을 측정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외모관심도, 성형태도 및 의복행동의 요인구조

여성들의 외모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1과 같이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나는 의복착용, 화장, 헤어스타일 연출 등에 관심이 많고 외모가 아름답거나 잘 생겨보이도록 외모관리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는 내용으로 '외모조화중시'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언제나 살찐 것에 대해 또는 살이 찌까봐 걱정하고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중이라는 내용으로 '체형중시'라 명명하였다. 그 결과 2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88, 요인 2는 .6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56.04%였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Appearance Concern

Factor/Variables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appearance harmony focus		
I am interested in apparel, make-up, hair style and so on.	.82	.88
I tend to manage appearance to look beautiful or handsome.	.80	
I always try to make my appearance look beautiful.	.78	
I am interested in the information of fashion, beauty, etc. regarding appearances.	.76	
I make sure I look okay, before going in front of others.	.76	
I want to be noticed with my great appearance.	.73	
I give variances by changing styles as much as possible.	.66	
Eigen value 4.14 Cumulative variance(%) 37.62 Mean 3.18		
Factor 2: body focus		
I always worry about my weight or gaining it.	.78	.63
I am on a diet to lose weight.	.73	
I like what I look like now.	-.62	
I think more slender people are, more stylish they look.	.59	
Eigen value 2.03 Cumulative variance(%) 56.04 Mean 3.08		

평균값을 살펴보면,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체중의 변화에 민감하며 아름다운 몸매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적인 체형과 이미지를 좌우하게 되고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현대사회의 외적인 비주얼의 가시화를 부각시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Hong, 2013).

여성들의 성형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Table 2와 같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나는 후유증을 감수하고라도 성형수술을 하길 원하며 결과가 다소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해 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위험감수'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형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성형수술은 신체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이미지향상/성형욕구'라 명명하였고, 요인 3은 성형수술을 한다면 나는 비밀로 하고 싶고 성형 전 모

습이 담긴 사진은 모두 없애고 싶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라 명명하였다. 그 결과 3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87, 요인 2는 .90, 요인 3은 .87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9.05%였다.

평균값을 살펴보면, 성형이후에 대한 위험의 지각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형에 대한 위험부담을 가지므로 성형을 하려는 의도는 낮은 것으로 설명된다. 이미지향상/성형욕구 요인은 평균점수가 2.54를 나타내어 중간점수를 보여주었다. 즉, 미용성형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70%라고 한 Hong(2013)의 연구를 지지한다.

여성의 의복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한 결과 Table 3과 같이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나의 성격이나 기분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패션제품이 좋으며 다른 사람과 비슷한 옷을 입는 것을 싫어한다는 내용으로 ;'개성중시'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고려하여 패션제품을 사고

Table 2. Factor Analysis of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Factor/Variables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risk tolerance		
I want to have a plastic surgery despite aftereffects.	.87	.87
I really want to have a plastic surgery despite the danger of being unsatisfied.	.85	
I really want to have a plastic surgery even though I am in a bad economic condition.	.77	
I really want to have a plastic surgery to be beautiful despite dangers.	.71	
I can go abroad for a successful plastic surgery with big expenses.	.68	
Eigen value: 4.18 Cumulative variance(%): 26.10 Mean: 1.73		
Factor 2: image improvement/surgery desire		
Having a plastic surgery is worthwhile for a successful social life.	.87	.90
Plastic surgeries are important to improve body images.	.85	
I can have self-confidence by complementing unsatisfied parts through plastic surgeries.	.78	
It is worthwhile to have a plastic surgery for a slim figure.	.59	
I want to do the same if I see a friend who becomes beautiful through a plastic surgery.	.59	
I want to save money for the expenses of plastic surgery in case of not getting parents(husband/wife)' help.	.59	
I want to have a plastic surgery like entertainers when I see their attractive appearances.	.58	
I want to have a plastic surgery when I see those kinds of advertisements.	.57	
Eigen value: 4.12 Cumulative variance(%): 51.82 Mean: 2.54		
Factor 3: keeping the secret of surgery		
I want to keep it a secret when having a plastic surgery.	.89	.87
I want to remove all pictures which hold before-surgical appearances if I have a plastic surgery.	.88	
I want my male(female) friends or spouse not to know before-surgical appearances if I have a plastic surgery.	.82	
Eigen value: 2.76 Cumulative variance(%): 69.05 Mean: 2.64		

연예인의 옷차림을 모방한다는 내용으로 '타인중시'라 명명하였고, 요인 3은 유행이 지난 옷이나 약간 낡은 옷이라도 편하게 입으며 걸모양이 좋은 옷보다는 입어서 편안한 옷을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편리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가끔은 명품 브랜드가 나를 돋보이게 하며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이 나의 이미지를 좋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명품과시'라 명명하였다. 4개 요인별 신뢰도 확인결과 Cronbach' α 값이 요인 1은 .83, 요인 2는 .77, 요인 3은 .71, 요인 4는 .8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0.33%였다.

Table 3. Factor Analysis of Clothing Behavior

Factor/Variables	Loading	Cronbach's α
Factor 1: individuality focus I like clothes that show my character or mood freely. I dislike wearing clothes that are similar to others. I prefer fashion products with unique design. I try to wear unique clothes that are different from many others. It's important for me to look harmonious when wearing clothes. I choose showy ones if there are clothes that are same style and price. I am happy when I give changes with my clothes or accessories.	.73 .73 .71 .68 .65 .60 .57	.83
Eigen value 3.69 Cumulative variance(%) 21.70 Mean 3.19		
Factor 2: other focus I consider information from others when buying clothes. I try to wear the clothes following the way entertainers do. I wear clothes according to the code of the group conscious. I want to wear trendy clothes. I wear clothes which look attractive to the other sex.	.73 .70 .69 .67 .59	.77
Eigen value 2.65 Cumulative variance(%) 37.27 Mean 2.73		
Factor 3: convenience I use a bag a bit old fashioned or old if it fits me. I prefer comfortable clothes to stylish ones. I tend to choose normal fashion to avoid attracting the eyes of others.	.80 .77 .68	.71
Eigen value 2.06 Cumulative variance(%) 49.36 Mean 3.30		
Factor 4: luxury ostentation Brand-name articles sometimes set off my figure to advantage. Brand-name articles, clothes(bags) make my image better.	.92 .89	.86
Eigen value 1.86 Cumulative variance(%) 60.33 Mean 2.77		

평균값을 살펴보면, 의복은 체형 위에 입혀지므로 활동하기 불편한 옷보다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신의 몸에 편하면서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여성의 외모관심도와 성형태도 및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외모관심도와 성형태도, 의복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외모관심도의 하위요인(외모조화중시, 체형중시)은 성형태도의 하위요인(위험감수, 이미지향상/성형욕구, 비밀유지) 및 의복행동의 하위요인(개성중시, 타인중시, 편리성, 명품과시)과 $p < .05$,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의복, 화장, 헤어스타일의 전체적인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일수록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형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위험하지만 성형이 필요하다면 성형하길 원하고 성형 전의 모습은

비밀을 원하며 개성을 중시하고 연예인의 옷을 모방하며 편안한 옷보다는 타인의 눈에 끌리는 옷을 선택하고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이 나의 이미지를 좋게 해 준다고 여겼다. 체형과 신체에 관심이 많은 여성일수록 이미지 향상과 성형욕구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성형의 비밀유지 및 편리성은 부적 상관 관계를 보여 편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끄는 옷을 선택한다. 이는 Chung(2012)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살찌는 것을 염려하는 여성일수록 성형수술을 통해 불만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며 성형 전의 모습을 비밀로 하길 원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준에 맞추어 옷을 입으며 편안한 옷보다는 외관이 아름다운 옷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체중과 신체에 관심이 많을수록 성형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한 Song and Kim(2005)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체중에 만족할

수록 꼭 맞는 의복을, 신체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느슨한 옷을 선호한다고 한 I. Kim(2010)의 연구를 지지한다. 자기 자신을 소극적으로 나타내주는 방법인 의복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개선, 표현할 수 있는 성형에 대하여도 역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Chung and Lee(2007)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3.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소비자 집단 분류 및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

Shim(2007)의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Table 1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 각 요인 값 산출에 의해 미리 정한 군집의 수로 군집화가 이루어지는 K-평균군집

Table 4. Correlation: Appearance Concern and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 Appearance Concern and Clothing Behavior

Variables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Clothing behavior			
	Risk tolerance	Image improvement/surgery desire	Keeping the secret of surgery	Individuality focus	Other focus	Convenience	Luxury ostentation
Appearance concern							
Appearance harmony focus	.233**	.422**	.167*	.671**	.553**	-.477**	.220**
Body focus	.127	.255**	.239**	.107	.251**	-.224**	.105

*p < .05, **p < .01

Table 5. Groups according to Appearance Concern

Groups	Appearance concern group (N=60)	Low appearance concern group (N=75)	Body concern group (N=71)	F
Appearance concern				
Appearance harmony focus	1.16 ^a A ^b	-.50 B	-.51 B	153.91***
Body focus	.06 B	-.86 C	.91 A	132.41***

***p < .001

a=average score by the groups, b=literally indicated result of Duncan test(A>B>C)

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외모관심도와 체형중시에서 집단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1은 의복착용, 화장, 헤어스타일 연출 등에 관심이 많고 항상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으로 '외모관심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60명(29.1%)이었다. 집단 2는 외모와 관련된 정보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에 관심이 낮고 현재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는 집단으로 '외모저관심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75명(36.4%)이었다. 집단 3은 늘 살찌는 것을 염려하고 현재 모습보다 더 날씬해지기를 원하므로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 중인 집단으로 "체형관심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71명(34.5%)이었다.

외모관심도 집단에 따라 인구통계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Table 6과 같고, 인구통계적 하위변인인 직업, 월평균소득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직업에서 보면, 대학생은 외모관심집단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전업주부는 외모저관심집단과 체형관심집단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직장인은 세 집단 모두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외모관심집단은 월평균소득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외모저관심집단은 또한 월평균소득에 따라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체형관심집단은 400만원에서 500만원미만의 집단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여성의 연령에 따른 외모관심도, 성형태도 및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외모관심도의 체형중시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와 30대는 50대보다 살찌는 것을 걱정하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후 여성은 살찌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건강을 생각하여 체중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40대가 20대보다 체중에 관심이 높다고 한 Song and J. Kim(2005)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며, 성형태도 중 이미지향상/성형욕구에서는 20대 여성에서 다른 연령대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개인의 능력 면에 외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재 사회에서 성형의 가치는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적극적인 성형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대가 40대보다 성형욕구에서 높았는데 이는 20대 피험자가 40대보다 자신의 신체 외모에 관심이 높으므로 성형욕구가 높다고 한 Song and Kim(2005)의 연구와 유사하다. 결혼 적령기로 교제가 많아지는 시기이며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여성이 많으므로 외모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어 외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성형수술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한 Jeon and Lee(2002)의 연구를 지지한다.

Table 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Appearance Concern

Variables		Groups	Appearance concern group (N=60)	Low appearance concern group (N=75)	Body concern group (N=71)	Total (N=206)
Occupancy	University Students		29(48.3)	7(9.3)	11(15.5)	47(22.8)
	Housewife		20(33.3)	56(74.7)	47(66.2)	123(59.7)
	Workers		11(18.3)	12(16.0)	13(18.3)	36(17.5)
	χ^2 -test		35.216***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13(21.7)	18(24.0)	20(28.2)	51(24.8)
	2-below 3 million		11(18.3)	17(22.7)	19(26.8)	47(22.8)
	3-below 4 million		8(13.3)	17(22.7)	14(19.7)	39(18.9)
	4-below 5 million		12(20.0)	16(21.3)	3(4.2)	31(15.0)
	More than 5 million		16(26.7)	7(9.3)	15(21.1)	38(18.4)
	χ^2 -test		17.489*			

*p < .05, ***p < .001

Table 7. Appearance Concern,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and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Age

Variables		Age	20's (N=55)	30's (N=73)	40's (N=46)	50's (N=32)	F
Appearance concern	Appearance harmony focus		.63 ^a A ^b	-.16 B	-.34 B	-.37 B	.47
	Body focus		.22 A	.21 A	-.24 B	-.37 B	4.60**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Risk tolerance		.01 A	.12 A	-.19 A	.17 A	1.09
	Image improvement/surgery desire		.43 A	-.02 B	-.21 B	-.10 B	4.46**
	Keeping the secret of surgery		.07 A	.06 A	-.12 A	.08 A	.47
Clothing behavior	Individuality focus		.50 A	-.15 B	-.39 B	-.06 B	8.50***
	Other focus		.33 A	.07 AB	-.21 BC	-.50 C	5.63***
	Convenience		-.24 B	-.04 B	-.12 B	.57 A	5.05**
	Luxury ostentation		-.22 A	.13 A	-.05 A	.18 A	1.66

p<.01, *p<.001

a=average score by the groups, b=literally indicated result of Duncan test(A>B>C))

의복행동 중 명품지향성을 제외한 개성중시, 타인 중시 및 편리성에서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30대 이후의 여성보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에 띄는 옷을 선택하며 최신 패션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준에 맞추어 옷을 착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50대 여성은 최신 유행하는 옷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받기보다는 평범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행동의 명품과시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30대와 50대에서 높게 나타나 30대는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는 의복이나 가방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고 50대는 자신이 원하는 소비부문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연령대에 따른 의복소비 관심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연령에 따른 성형행동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연령별 성형행동 중 성형경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형 안함 68.4%, 성형 1회 18.4%, 성형 2회 이상 13.1%로 나타나 성형태도에

서는 약간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 성형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 Huh and Lee(2011)와 Hong(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형 2회 경험이상에서 20대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형한부분의 복수응답 처리한 결과, 눈 성형 경험이 가장 높았고, 피부성형, 코, 제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성형 선호부위에서 '코'가 많다고 한 Hong(201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성형을 한 부분과 성형을 원하는 부위의 차이로 사료된다.

4. 외모관심도 집단에 따른 성형태도 및 의복행동의 차이

여성의 외모관심도 집단에 따른 성형태도 및 의복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Duncan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외

모관심도 집단에 따라 성형태도 요인 중 이미지향상/성형욕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의복행동 요인 중 명품지향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외모관심집단은 불만족

한 신체 부위를 성형을 통해 만족해지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심집단은 이미지향상 및 성형욕구가 높으며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개성을 추구하고 타인을 의식하고자 하는 성

Table 8. Plastic Surgery according to Age

Variables		Age	20's (N=55)	30's (N=73)	40's (N=46)	50's (N=32)	Total (N=206)
Plastic surgery experience	Never		33(60.0)	51(69.9)	34(73.9)	23(71.9)	141(68.4)
	1 times		7(12.7)	13(17.8)	10(21.7)	8(25.0)	38(18.4)
	More than 2 times		15(27.3)	9(12.3)	2(4.3)	1(3.1)	27(13.1)
	χ^2 -test		16.506*				
Part of surgery	Eye		12(6.1)	16(8.2)	7(3.6)	4(2.0)	39(19.9)
	Nose		8(4.1)	3(1.5)	1(0.5)	1(0.5)	13(6.6)
	Skin forming		9(4.6)	8(4.1)	5(2.6)	3(1.5)	25(12.8)
	Remove hair		5(2.6)	1(0.5)	0(0.0)	0(0.0)	6(3.1)
	Never		33(16.8)	45(23.0)	33(16.8)	20(10.2)	131(66.8)
	Total		55(28.1)	67(34.2)	45(23.0)	29(14.8)	196(100.0)

*p < .05

Table 9.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and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Appearance Concern

Variables		Groups	Appearance concern group (N=60)	Low appearance concern group (N=75)	Body concern group (N=71)	F
Attitude toward plastic surgery	Risk tolerance		.05 ^a A ^b	.07 A	-.07 A	.17
	Image improvement/surgery desire		.47 A	-.24 B	-.02 B	10.04***
	Keeping the secret of surgery		.18 A	-.09 A	.02 A	1.35
Clothing behavior	Individuality focus		.80 A	-.33 B	-.38 B	40.99***
	Other focus		.41 A	-.25 B	-.12 B	8.36***
	Convenience		-.29 B	.23 A	-.04 AB	4.77**
	Luxury ostentation		.05 A	.05 A	-.09 A	.44

p < .01, *p < .001

a=average score by the groups, b=literally indicated result of Duncan test(A>B)

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모관심도가 높은 사람은 미용성형행동에 거부감이 낮아 실제로 미용성형행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 Hwang et al. (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미용성형욕구가 높은 사람은 신체적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적 손쉽게 신체적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의복을 많이 활용한다고 한 Song(2009)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외모저관심집단은 성형에 대한 욕구가 낮으므로 신체불만족한 부분을 성형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체형관심집단은 성형을 통해 체형을 바꾸기 보다는 식습관이나 생활 속에서 몸매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의복행동 요인 중 개성추구, 타인중시, 편리성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외모관심집단은 개성을 표현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선호하고 연예인의 옷차림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옷 입는 기준에 맞추어 착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은 의복을 통해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옷을 선택한다고 한 I. Kim(2010)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또한 외모와 체중이 높은 집단은 유행이나 의복에 관심이 높다고 한 Jeon and Lee(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외모저관심집단은 오래 입어서 편하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외모에 무관심한 여성은 관리용이성을 추구하고 심미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느슨한 옷을 선호한다고 한 I. Kim(2010)의 연구를 지지한다. 체형관심집단은 독특한 디자인보다는 자신의 체형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옷으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의 총체적 접근인 외모관심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후 외모관심도 집단별 성형태도와 의복행동을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심도는 외모조화중시, 체형중시로 나타났으며, 외모관심도의 요인을 집단으로 분류한 결

과 외모관심집단(29.1%), 외모저관심집단(36.4%), 체형관심집단(34.5%)으로 분류되었다. 성형태도는 위험감수, 이미지향상/성형욕구, 비밀유지로 나타났으며 의복행동은 개성중시, 타인중시, 편리성, 명품과시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관심도의 외모조화중시는 성형태도의 위험감수, 이미지향상/성형욕구, 비밀유지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의복행동의 개성중시, 타인중시, 명품과시에서 정적상관을, 편의성에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외모관심도의 체형중시는 성형태도의 이미지향상/성형욕구, 비밀유지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의복행동의 타인중시에서 정적상관을, 편리성에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외모관심도 집단에 따라 성형태도 요인 중 이미지향상추구/성형욕구($p < .001$)에서, 의복행동 요인 중 개인중시($p < .001$), 타인중시($p < .001$), 편의성($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연령에 따라 외모관심도 요인 중 체형중시($p < .01$)에서, 성형태도의 요인 중 이미지향상/성형욕구($p < .01$)에서, 의복행동의 요인 중 개인중시($p < .001$), 타인중시($p < .001$), 편의성($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성형행동에서 성형경험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성형을 안함 68.4%, 성형 1회 18.4%, 성형 2회 이상 13.1%를 나타냈고, 성형 부위는 눈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체형의 변화에 민감하였고 아름다운 몸매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성형이후의 위험지각도가 높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형하려는 의도는 낮았다. 의복은 신체 위에 입혀 지므로 활동하기 불편한 옷보다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일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편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마케터

는 개인의 취향과 직업을 고려한 스타일을 매장에 제시하여 각 상황에 어울릴 수 있는 의복유형을 제안한다.

둘째, 의복, 화장, 헤어스타일의 코디네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일수록 성형을 통해 자신감이 상승되었으며 만족감이 높았고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였다. 살찌는 것을 염려하는 여성일수록 성형수술을 통해 불만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였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준에 맞추어 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며 편안한 옷보다는 매력적인 옷을 선호하였다. 즉, 전체적인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은 자신의 불만족한 신체를 성형을 통해 만족감이 높아지고 브랜드제품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코디네이터는 고객의 신체를 고려하여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패션제품을 제안한다. 체형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여성에게는 불만족스러운 외모를 성형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체형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의복 스타일을 제안한다.

셋째, 외모관심집단은 불만족한 신체 부위를 성형을 통하여 만족감을 가졌다. 개성을 표현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옷이면서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외모저관심집단은 성형에 대한 욕구가 낮기 때문에 성형 행위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평범하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편한 옷을 선호하였다. 체형관심집단은 성형을 통해 체형을 바꾸기 보다는 생활속에서 몸매를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으며 독특한 디자인보다는 자신의 체형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옷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외모관심집단은 성형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며 현재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개성을 살린 스타일로 자신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여주길 원하였다. 이들은 외모에 관심이 높아서 외모관리를 위한 시간, 돈, 정열(에너지)을 소비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개인의 취향, 스타일을 파악하여 유행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패션제품을 제안한다. 외모저관심집단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낮으므로 겉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내면적인 미를 강조한 기능적이면서 실용성이 높은 효용적 가치를 부가한 패션제품을 제

안한다. 건강과 체중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체형관심집단에게는 자신의 체형을 파악하고 건강을 위한 음식과 운동을 제안하여 체형의 장점을 부각시킨 의복을 선택하도록 제안한다.

넷째, 20대와 30대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았으며 40대 이후 여성은 다이어트보다는 건강을 고려하여 체중관리를 하였다. 매력적인 외모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적극적인 성형태도를 보였다. 20대는 현재 트렌드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스타일로 매력적인 외모를 연출할 수 있는 패션제품을 선택하였다. 50대 여성은 입어서 불편한 옷보다는 편한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연령에 따른 인체의 변화를 인식하고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스타일을 파악하여 각 연령대에 적합한 의복을 선택하도록 제안한다.

다섯째, 성형태도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성형 안 함이 68.4%를 나타내어 성형태도와 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2회 이상 성형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성형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20대 여성들의 성형중독에 빠질 우려를 고려하여 성형에 대한 올바른 선택행동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성인여성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여 실증 조사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전 소비계층으로 확대 해석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외모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변수와 행동적 변수에 따른 성형의도, 성형태도, 성형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Choi, M., Kim, K., & Kim, J. (2009). Effect of women's self-consciousness and body-image on repeated cosmetic surge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5(2),

- 649-661.
- Chung, M. (2012).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ery, body value inclination, an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n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10), 1125-1136.
- Chung, M., & Lee, K. (2007). The influence of aesthetic surgery attitude, self-esteem and body image on clothing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7), 131-104.
- Hong, S. (2013). A study on korean females' satisfaction with and thoughts on their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according to cosmetic surgery.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4(3), 349-355.
- Huh, E., & Lee, A. (2011). Impacts of mass media and personal factors on attitudes towards plastic surgery and plastic surgery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3), 625-636.
- Hwang, Y., Jo, K., & Yoo, T. (2003). The study on cosmetic surgery behavior according to appearance concern, body cathexis, and self-esteem. *Journal of Fashion Business*, 7(4), 17-25.
- Jeon, K., & Lee, M. (2002). A study on the need, self-esteem, and aesthetic surgery attitude of femal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52(6), 71-83.
- Kahng, H., Lee, K., Koh, A., Chung, M., Nam, M., & Kim, Y. (2012). *의상사회심리학*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3rd ed.). Seoul: Kyomunsa.
- Kim, I. (2010). The effect of body image on clothing behavior and weight control of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9), 1442-1453.
- Kim, K., Lee, K., & Chung, M. (2001).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clothing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9), 5-102.
- Kim, Y., & Park, O. (2009). A study on group-specific external feature concerns and beauty care behaviors depending on narcissistic propensity. *Journal Korean Society Clothing Industry*, 11(5), 808-817.
- Lee, J., & Han, G. (2008). The effects of university women students' socio-cultural attitudes to appearance on their body image and satisfaction of their physical bodi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2(2), 153-164.
- Lee, M., & Song, K. (2009). The effects attitudinal body image and plastic surgery attitude on cloth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2), 441-449.
- Lookism. (2002, July). *Cheil*. Retrieved November 20, 2012, from <http://www.cheil.co.kr>
- Musa, H., & Roach, M. (1979). Adolescent appearance and self-concept. *Adolescence*, 8, 385-394.
- Park, E., & Cho, H. (2012). Self-efficacy and body satisfaction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s typology. *The Research Journal of Costume Culture*, 20(4), 515-528.
- Park, E., & Ku, Y. (2012).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s on fashion behaviors. *Journal Korean Society Clothing Industry*, 14(5), 811-820.
- Rudd, N. A., & Lennon, S. J. (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college women.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8(3), 152-162.
- Shim, J. (2007). A study on difference of clothing behavior and desired image by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7(11), 1574-1585.

Son, E. (2007). The influenc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the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 and the attitude of body image on the intention of plastic surger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1), 63-81.

Song, K. (2009). The effects of perceptual body imag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cloth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10), 1611-1621.

Song, K., & Kim, J. (2005). The effects of body-image measured by multi measurements on body modification,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3/4), 391-402.

Received(April 11, 2014)

Revised(June 3, 2014; June 11, 2014)

Accepted(June 13, 2014)